



2023년 계묘년(癸卯年) 새해를 맞아 2일 오전 강기정 광주시장,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, 이정선 광주시교육감, 5개 구청장 등 이 국립5·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. /김태규 기자



2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전남도청 실·국장 등 관계자들이 목포 현충공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나 서고 있다. /전남도 제공

계묘년, 광주·전남 힘차게 뛴다

각계 시무식·5월 참배 새 다짐

강 시장 “시민행복 이끌겠다”

김 지사, 체전·에너지 성공 다짐

광주·전남 각급 기관들이 2일 시무식 등을 갖 고 계묘년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.

강기정 광주시장은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북 구 운영동 국립5·18민주묘지를 방문해 한해 의 지를 다졌고, 김영록 전남지사는 첫 행보로 전 국체전 주 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과 나주 에 너지국가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찾아 현안사업 추진과 새로운 도약을 강조했다.

2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정 무창 광주시의회 의장, 이정선 광주 교육감, 5개 구청장, 5·18단체 대표, 4·19단체 대표 등과 함 께 국립5·18민주묘지에 합동 헌화·분향했다. 강 시장은 민주 묘지 방명록에 “눈에 보이는 변화 시민 행복 이끌겠습니다”라고 적었다.

이후 강 시장은 시청에서 새해 첫 정례 조화 를 겸한 시무식을 갖고 “조직 활력을 통해 눈에 보이는 변화로 시민 행복을 이끌어가겠다”고 밝혔다.

시무식에서 직원들은 강 시장에 ‘재벌집 막내아들 드라마처럼 모든 기억을 가지고 6개 월 전으로 돌아가 민선 8기를 시작한다면’ 등 재치 있는 질문으로 시작해 안전 문제, 공모사 업 실패 경험, 육아·보육 정책 방향 등을 묻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.

김영록 전남지사는 새해 첫 행보로 목포종합 경기장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, 추진 상황을 살

폈다.

김 지사는 공사 관계자로부터 진척 현황을 점 검하고 성공적인 전국체전 준비를 당부했다.

목포종합경기장은 지상 3층, 연면적 2만 6,468㎡, 관람석 1만6,468석 규모로 건설된다. 104회 전국체전 개·폐회식 행사와 육상경기가 치러진다. 국비 200억원과 도비 330억원 등 530억원을 전남도가 지원하고 목포시가 618억 원을 들여 총 1,148억원이 투입된다.

현재 공사는 골조 공사가 완료되는 등 차질없 이 진행돼 공정을 70%로, 오는 6월이면 주요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. 주 경기장이 준공되 면 시운전을 거쳐 7월께 전남도, 목포시 등 주 요 체전 관련 기관이 주 경기장에 입주해 본격 적인 전국체전 운영체제가 가동된다.

전남도는 주 경기장 외에도 목포만다비체육 센터, 광양성황스포츠허브수영장, 나주 스쿼시 전용경기장, 문봉장애인경기장 등 신축 경기장 4곳과 기존 경기장 51곳 건립을 위해 22개 시군 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.

김 지사는 “전국체전은 도민뿐 아니라 전 국 민이 기다리는 스포츠 축제인 만큼 전남도와 목 포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성공적으로 치르 자”며 “세계로 웅비하는 전남 대도약을 견인하 는 사발집이 되도록 올림픽에 버금가는 감동 체 전을 만들자”고 강조했다.

김 지사는 이어 이날 오후 나주 에너지국가산 업단지 조성 예정지를 방문해 산단 배치계획안 등 사업계획을 살피고 용지가 적기에 공급되도 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. 에너지국가산 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전남개발 공사 공동으로 나주 혁신산업단지 인근에 2030년까지 3,080억원을 들여 120만㎡ 규모로

에너지밸리산업, 신소재나노융합소재산업 등 ‘에너지 신산업’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.

김 지사는 “관계기관이 혼연일체로 조성 기 간 단축에 노력을 기울여 기업이 필요한 용지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해달라”며 “에너지 국가산 단과 혁신산단 등을 연계한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클러스터 로 육성하겠다”고 덧붙였다.

김 지사의 이날 현장 행보는 올해 전남에서 치러지는 ‘4대 행사’ 중 하나인 전국체전 성공 개최와 핵심 현안인 에너지산업의 가시적 성과 를 이끌어 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.

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국립5·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.

더불어민주당 광주시·전남도당 당직자와 소 속 국회·지방의원들은 이날 5·18민주묘지를 찾아 합동 참배했다.

광주시당에서는 이병훈 시장위원장을 비롯 해 8개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선출직 공직자, 핵 심 당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.

이 위원장과 참배단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 된 5·18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헌화와 분향 을 마친 뒤 광주 정신의 항구적 계승과 민생 쟁 기기를 다짐했다. 이 위원장은 “우리에게는 운 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어려워진 민생을 살피고 검찰 독재 시도를 막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”며 “광주정신 계승과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 민 생 중심 민주당으로 환골탈태하는 데 우리 모두 의 힘을 모아야 할 때”라고 강조했다.

전남도당에서는 신정훈 위원장을 포함해 이 개호·서동용·소병철·주철현·김원아·김희재·윤재갑 의원, 지방의원, 당원 등 200여명이 참 여했다. /김용현·임채민 기자

강기정 시장, 새해벽두 ‘광주 세일즈’

‘CES 2023’ 8개사 첫 출전

5일부터 공동브랜드관 운영

강기정 광주시장이 계묘년 새해 미국에서 지 역 기업 세일즈에 나선다.

2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미국 라스베 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·IT 전시회 인 ‘CES 2023’에 지역 기업 8개사를 이끌고 첫 출전한다. CES는 미국 소비자전자제품 전 시회로, 미국소비자기술협회(CTA)가 주관하 는 스마트가전, 5G, AI, IoT, 헬스케어, 자동차 기술 등 미래 기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형 전시회다.

광주시는 CES 2023이 열리는 5일부터 8일 까지 나흘간 광주 공동브랜드 홍보관을 운영해 인공지능(AI)과 지능형 스마트홈 기술이 구현 된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.

특히 코로나 팬데믹 등 감염병과 황사·미세 먼지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공기질 개선 욕구에 맞춘 공기청정기 제품이 다수 출품돼 눈길을 끌 전망이다. 주요 제품으로는 ㈜디케이의 벽걸이 공기청정기, ㈜벤텍프론티어의 공기청정기, ㈜쓰리에이치굿스의 원격외선 히터 무풍난풍기, ㈜아이디어스의 지능형 스마트홈 실시간 감시 시스템, ㈜아이콘의 살균건조기 등 총 8개 기업 14개 제품이다.

CES 2023에 참가하는 공동브랜드는 광주시 가 개발한 ‘지엘(GIEL)’로 2018년 지역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만들었다.

강기정 시장은 “창업 성공률이 높은 기회도 시 광주를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지역 제품들의 판로 확대가 중요하다”며 “세계 첨단기술 경연 의 장에서 광주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지역 기업 들이 높은 기량을 펼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 루길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 /김용현 기자

자동차 번호판 봉인

60년 만에 폐지된다

자동차 번호판 위·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.

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 의·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 일 밝혔다. 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이다.

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·변조 차 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고, 위변조 방지

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 폐 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. /연합뉴스

함께하는 나눔
지속 가능한 미래

성금 접수 계좌
광주사랑의열매 : 053-107-999990 광주은행
전남사랑의열매 : 301-4000-3000-01 농협은행

SAMSUNG

새로운 출발

모두의 꿈과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

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